국어(한문 포함)

1. 다음 강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학생들이 공감 능력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공감 능력은 삶의 질과 사회적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역량임이 밝혀졌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공감이 잘되면 그 학급의 성취도가 높았고, 기업 내에서도 팀원들 간에 공감이 잘되면 업무 성과가 높았습니다. 이렇듯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교육 현장에서도 공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① 강연의 전체적인 진행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학교와 기업의 사례를 대조하여 두 집단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③ 강연의 도입부에서 질문의 형식을 빌려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④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주장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2. <지침>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때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 침>

○ 서론은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필요성을 순서대로 제시할 것.
○ 본론은 두 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2장과 3장의 하위 항목이 서로 대응하도록 할 것.
○ 결론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순서대로 제시할 것.

<개 요>

○ 제목: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1장 서론
  1절 (가)
  2절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

2장 □□지역 관광 활성화의 저해 요인
  1절 (나)
  2절 숙박업소 및 음식점의 바가지요금과 불친절한 서비스

3장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
  1절 관광지 중심의 대중교통 노선 개편 및 관광 안내소 확충
  2절 (다)

4장 결론
  1절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2절 (라)

① (가): 최근 5년 간 □□지역 관광객의 지속적인 감소
② (나): 관광지의 교통편 및 관광 안내 인프라 부족
③ (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먹거리 상품 개발
④ (라): 관광 시설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 구축

3.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상작은 정부의 지침에 의거(依據)하여 포상한다. → 근거하여
② 신청자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적시(摘示)한다. → 적당히 제시한다
③ 부족한 시설을 확충(擴充)할 예정이다. → 늘리고 넓혀 충실하게 할
④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적의(適宜)한 조치를 취한다. → 알맞고 마땅한

4. 다음 시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험 우희 치다라 안자
> 것넌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덕 뛰여 내닷다가 두험 아래 잣바지거고
> 모쳐라 날낸 낼식만졍 에헐**질 번 하괘라
>
> * 백송골: 매의 일종
> ** 에헐: 피멍

① 초·중장에서 대상 간의 상대적 관계를 통해 강자와 약자를 제시하고 있다.
② 종장은 두꺼비의 발화를 통해 백송골이 자비를 베푼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③ 두꺼비의 행동을 통해 심리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④ 우의적 표현을 통해 인간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어떤 나그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 "어제저녁엔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돌아다니는 개를 큰 몽둥이로 죽이는데, 보기에도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虱]'를 잡아 그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 나그네가 실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 "이는 미물이 아닙니까? 나는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서 대꾸하니, 나를 놀리는 것 아닙니까?" 하였다.
> 나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 "무릇 혈기가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놈과 작은 놈을 예로 들어 말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
> – 이규보, 「슬견설(虱犬說)」에서 –

① '나그네'와 '나'의 대화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② 일상적 소재를 통해 공동체적 삶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생명을 차별 없이 바라보려는 작가의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이'와 '개'의 죽음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6. 밑줄 친 부분의 고쳐 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전자 치료제의 취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불필요한 외래어가 남용되었으므로 '지침'으로 수정한다.
② 조선은 태조 이성계에 의해 건국되어졌다. → 어색한 피동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가 건국했다'로 수정한다.
③ 귀 기관으로부터 미술품을 대여하고자 합니다. → 의미에 맞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였으므로 '빌려주고자'로 수정한다.
④ 사업 일정은 기관 사정을 고려, 군별 추진 → 어미, 조사, '–하다'가 생략되었으므로 '고려하여, 군별로 추진한다.'로 수정한다.

7.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남들은 멀쩡히 잘도 걸어 다니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목발에 의지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펜만 잡으면 멋진 글이 술술 잘도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이 짤막한 글 하나 쓰면서도 머리를 벽에 박아야 하는가. 그렇다고 다른 재주가 있느냐 하면 노래, 그림, 손재주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다. 하느님은 누구에게나 나름의 재능을 골고루 나눠 주신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필이면' 나만 깜빡하신 듯하다. … (중략) …
>
> 그런데 어제저녁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 아름이가 내게 던진 '하필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길거리에서 귀여운 팬더 곰 인형을 하나 사서 아름이에게 갖다 주자 아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는데?" 하는 것이었다. 다른 형제나 사촌들도 많고, 암만 생각해도 특별히 자기가 받을 자격도 없는 듯한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아름이 나름대로의 고마움의 표시였다. … (중략) …
>
>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기에, 하고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가 훌륭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 좋은 형제들과 인연 맺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는가.
>
> — 장영희, 「하필이면」에서 —

① 주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나타낸다.
② 일상적 일화를 들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계기를 보여 준다.
③ 동일한 표현이 다르게 쓰이는 상황을 보여 주면서 주제를 제시한다.
④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완곡하게 드러낸다.

8.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김○○ 팀장: 이번에 실시할 시민 문화 행사의 포스터는 강렬한 자주색을 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시민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신○○ 팀장: 시선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명상과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주색은 시민의 마음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차분한 느낌의 초록색 계열을 사용하는 것이 이번 행사에 더 적합해 보여요.
> 김○○ 팀장: 아, 이번 시민 문화 행사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면, 그 말씀이 맞네요. 그럼 주된 색상은 초록색을 사용하되, 시민들이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에만 자주색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 신○○ 팀장: 네, 그렇게 하면 행사의 목적도 살리면서 시선 집중 효과도 있겠네요.

① 공감을 표현하여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②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고 있다.
③ 상대방과 공유했던 경험을 근거로 새로운 견해를 제안하고 있다.
④ 모순된 사실을 부각하여 상대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9.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흙가루'의 표준 발음에서는 '탈락'과 '축약' 현상이 나타난다.
② '값있다'의 표준 발음에서는 '탈락'과 '교체' 현상이 나타난다.
③ '복학생'의 표준 발음에서는 '축약'과 '교체' 현상이 나타난다.
④ '부엌일'의 표준 발음에서는 '교체'와 '첨가' 현상이 나타난다.

10. (가) ~ (라)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 「한글 맞춤법」에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했을 때,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다. 그 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다.
>
> ○ (가): 어간의 끝 'ㅜ'가 줄어질 적
> ○ (나):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적
> ○ (다):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 ○ (라): 어간의 끝음절 '르'의 'ㅡ'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

① (가): 두레박으로 물을 <u>품</u>
② (나): 잔치국수가 <u>불음</u>
③ (다): 드디어 목적지에 <u>다다름</u>
④ (라): 그들과의 시합을 단단히 <u>벼름</u>

11.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세상 물정에 ㉠ <u>밝은</u> 사람

① 벌써 새벽이 <u>밝아</u> 온다.
② 그는 경위가 <u>밝은</u> 사람이다.
③ 이 기술은 장래성이 <u>밝아</u> 보인다.
④ 그는 자기 고장의 지리에 <u>밝은</u> 사람이다.

12.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식비 <u>인상(引上)</u> 건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시의회는 환경 보전을 위해 <u>조례(條例)</u>를 개정했다.
③ 경기가 과열되자 당국은 <u>금리(金利)</u>를 인상하려 한다.
④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새로운 <u>방재(防財)</u> 대책을 발표했다.

13. 다음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진주(晋州) 장터 생어물전에는
> 바닷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
> 울 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 울 엄매야 울 엄매,
>
> 별 밭은 또 그리 멀리
>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
> 진주(晋州) 남강(南江) 맑다 해도
> 오명 가명
>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 울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 — 박재삼, 「추억(追憶)에서」 —

① 반어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상반된 심경을 나타내고 있다.
② 토속적 시어를 통해 이국적 공간에 향토적 정서를 부여하고 있다.
③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
④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을 통해 슬픔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은유는 단지 말을 꾸미는 수사적 표현으로 이해되어 문학에만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알고 보면 인간의 언어생활 전반에 퍼져 있는 언어 사용 방식이다. 은유는 목표 영역을 근원 영역을 통해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목표 영역이란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새롭고 추상적인 경험 세계를 말하며, 이것은 기존의 경험 세계인 근원 영역을 이용해서 개념화된다. 즉 한 영역의 사물을 다른 영역의 사물에 빗대어 이해하게 하는 것이 은유의 주된 기능이다.
>
> 은유는 모호한 개념을 명확히 만든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라는 개념은 별다른 사유 과정 없이 명확히 알 수 있지만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의 가치'는 훨씬 어렵게 느낀다. '시간의 가치'를 말로 설명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은유이다. 예를 들어, '시간은 금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시간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은유는 단순히 언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은유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사고 과정에 작용하는 기제 중의 하나이다. '컴퓨터 바이러스'와 '백신 프로그램'이라는 단어에도 은유가 들어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단어는 컴퓨터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우리 몸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에 비유한 것이다. 이 단어가 컴퓨터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용어로 만들어졌다면 일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바이러스'라는 은유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게 된다.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경험이 '컴퓨터'와 결합하여 '컴퓨터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으니 그것을 치료하는 프로그램도 덩달아 '백신 프로그램'으로 명명된다.

① 은유는 사유의 과정을 통해 기존의 경험 세계를 이해하게 해 준다.
② '시간은 금이다.'라는 은유에서 '금'은 목표 영역에 속한 대상이다.
③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은유에서 근원 영역에 속한 개념은 '우리 몸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이다.
④ '백신'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경험은 '백신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15. 빈칸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시 체육시설관리팀의 서 주무관은 지역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계획을 세우면서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진입로를 오르내리며 경사와 문턱의 높이를 기록하고, 노약자와 어린이의 이동 동선도 함께 확인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이른바 [ ]을/를 실천한 것이다.

① 以心傳心
② 易地思之
③ 同苦同樂
④ 草綠同色

16.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람들은 만나서 언어적으로 상대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눈의 움직임, 표정, 몸짓을 통해 비언어적으로 정보를 '풍기기도' 한다. 사람들은 비언어적 신호에 섬세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무언의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와 관련한 실험이 있다. A에게 대학 구내를 돌아다니면서 낯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눈 마주치기',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짓기', '못 본 척하기' 중 하나의 행동을 하게 했다. 나중에 A를 만났던 사람들에게 느낌이 어땠는지 물었더니 두 부류로 나뉘었다. A가 눈을 마주치거나 미소를 지어 주었던 첫 번째 부류가 못 본 척했던 두 번째 부류보다 사회로부터 단절된다는 느낌을 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의 경우 상대의 눈을 보는 것만으로도 작지만 의미 있는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는 감정을 느꼈고, 후자의 경우 상대에게 외면당했다는 소외의 감정을 느낀 것이다. 이는 인간에게 아주 작은 단서까지 감지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 이렇게 볼 때, 고도로 발달한 개인용 기기의 확산은 작지만 의미 있는 사회적 관심을 점차 고갈시키고 있는 셈이다. 계산대의 점원은 고객들에게 자신이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 간다고 말한다. 고객들은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어폰을 꽂고서 점원에게는 알은척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같은 좁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마주쳐도 휴대전화만 쳐다볼 뿐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고도 그것이 상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오늘날에는 사람들과 유리되는 것이 점점 더 공적 공간의 표준이 되어 가고 있다.

① 인간은 아주 작은 단서까지 감지하는 시스템을 통해 비언어적 정보를 해석한다.
② 인간은 타인과의 만남에서 언어적으로보다 비언어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
③ 사람들은 자신이 의미 있는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는 느낌보다 단절된다는 느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④ 지하철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전혀 눈길을 주지 않는다면 그곳은 공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17.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가) 이때의 '언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역과 시대를 가리지 않고 이제까지 쓰였던 모든 말, 그리고 지구상에 쓰이고 있는 모든 말을 가리킨다.
> (나) 이 언어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을 포괄한다. 이때 각각의 언어를 '개별 언어'라고 부른다.
> (다) '언어적 인간'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본질적이고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언어에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처럼 인간과 언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 (라)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할 때 이 말은 '언어'일 수도 있고 '개별 언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을 한다고 할 때는 개별 언어를 염두에 둘 때가 많다.

① (다) → (가) → (나) → (라)
② (다) → (나) → (라) → (가)
③ (라) → (나) → (가) → (다)
④ (라) → (다) → (가) → (나)

18.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폭풍이나 높은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코코넛 씨앗이 바다에 떨어져 부유하다 해류를 만났다. 이 씨앗이 먼바다를 항해한 끝에 열대 해안에 도착해서 뜻밖의 번성을 하게 된다. 폭풍이 몰아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카오스'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틈'이 발생한다. 그런 상태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색다른 인자가 등장한다면 우연한 행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 역사적 사건 중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흑사병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서식하던 벼룩이 무역선의 쥐를 숙주로 삼아 영국 땅을 밟으면서 유럽 전역에 전파되었고, 결국 유럽 인구 3분의 1 이상의 목숨을 앗아 갔다. 그 쥐가 그토록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리라고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유럽은 거의 파탄이 나서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 성직자들도 흑사병을 피할 수 없었고, 그들 중 절대다수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고 획일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었다. 그 사회는 교회의 종교적 교리를 벗어난 일체의 외부적 지식이 차단된 상태였고, 성경 외의 지식이나 이성은 경시한 채 오직 종교적 믿음만을 중시했다. 성직자들의 죽음으로 사람들은 의지할 곳을 잃었다. 그로 인해 교회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종교적 믿음에 금이 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교회 밖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종교를 대신할 새로운 지식에 대한 높은 열망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났으며, 그리스 로마 철학, 예술, 건축, 자연 과학 등과 관련된 지식이 다시금 각광을 받았다. 이러한 학문적 열망은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교육 체계를 갖춘 대학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① 종교적 믿음의 약화는 '틈'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카오스'라 할 수 있다.
③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망은 색다른 인자라고 할 수 있다.
④ 권위적 지배 질서의 붕괴는 우연한 행운의 결과라 할 수 있다.

19.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르트르는 자유를 철학의 중심에 놓고 일관된 사유를 전개한 사상가이다. 그는 실존주의를 설명하면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다. 여기서 '실존'은 단순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본질'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성질이나 정체성을 의미한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고정된 본질을 먼저 부여받고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존재한 이후 선택과 행위를 통해 점차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만들어 간다. 인간 외의 생물은 일정한 생물학적 구조와 본능적 설계에 따라 행동하지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스스로 떠안게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축적되어 하나의 '본질'처럼 보이게 된다고 사르트르는 설명한다. 즉, [ ].

① 실존주의는 본질보다는 실존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철학인 것이다
②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인간은 선택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구성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④ 인간 외의 생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존 단계에서 비롯된다

20.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한글은 소리글자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개구리'나 '사람'은 그것이 [개구리]와 [사람]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개구리'와 '사람'으로 적는다. 한글이 이러한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제1항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소리 나는 대로 글자를 적는 표기법을 '표음주의 표기법'이라고 한다.
>
> 그런데 한글이 소리글자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소리 나는 대로만 적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명사인 '꽃'에 조사 '도', '이', '만'을 붙여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꼳또', '꼬치', '꼰만'으로 적어야 한다.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동일한 명사의 형태를 각각 달리 적게 되어서 독자들이 글을 읽을 때 혼동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꽃도', '꽃이', '꽃만'은 '꽃'이라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명사의 형태를 일관되게 적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표기법을 '표의주의 표기법'이라고 한다.
>
> 이러한 표기법은 형태소를 밝혀 적음으로써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어, '꼳또', '꼬치', '꼰만'으로 표기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꽃'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으나, '꽃도', '꽃이', '꽃만'으로 표기하면 형태가 일정하기 때문에 의미 파악이 용이하다. 이를 위해 「한글 맞춤법」 제1항의 두 번째 원칙으로 '어법에 맞게 함'이라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① '숫개'를 '수캐'로 적는 것은 표음주의 표기법을 반영한 예이다.
② '미다지'를 '미닫이'로 적는 것은 표의주의 표기법을 반영한 예이다.
③ '멍는'을 '먹는'으로 적는 것은 형태를 고정하려는 원칙을 준수한 예이다.
④ '바늘질'을 '바느질'로 적는 것은 「한글 맞춤법」 제1항의 두 번째 원칙을 준수한 예이다.